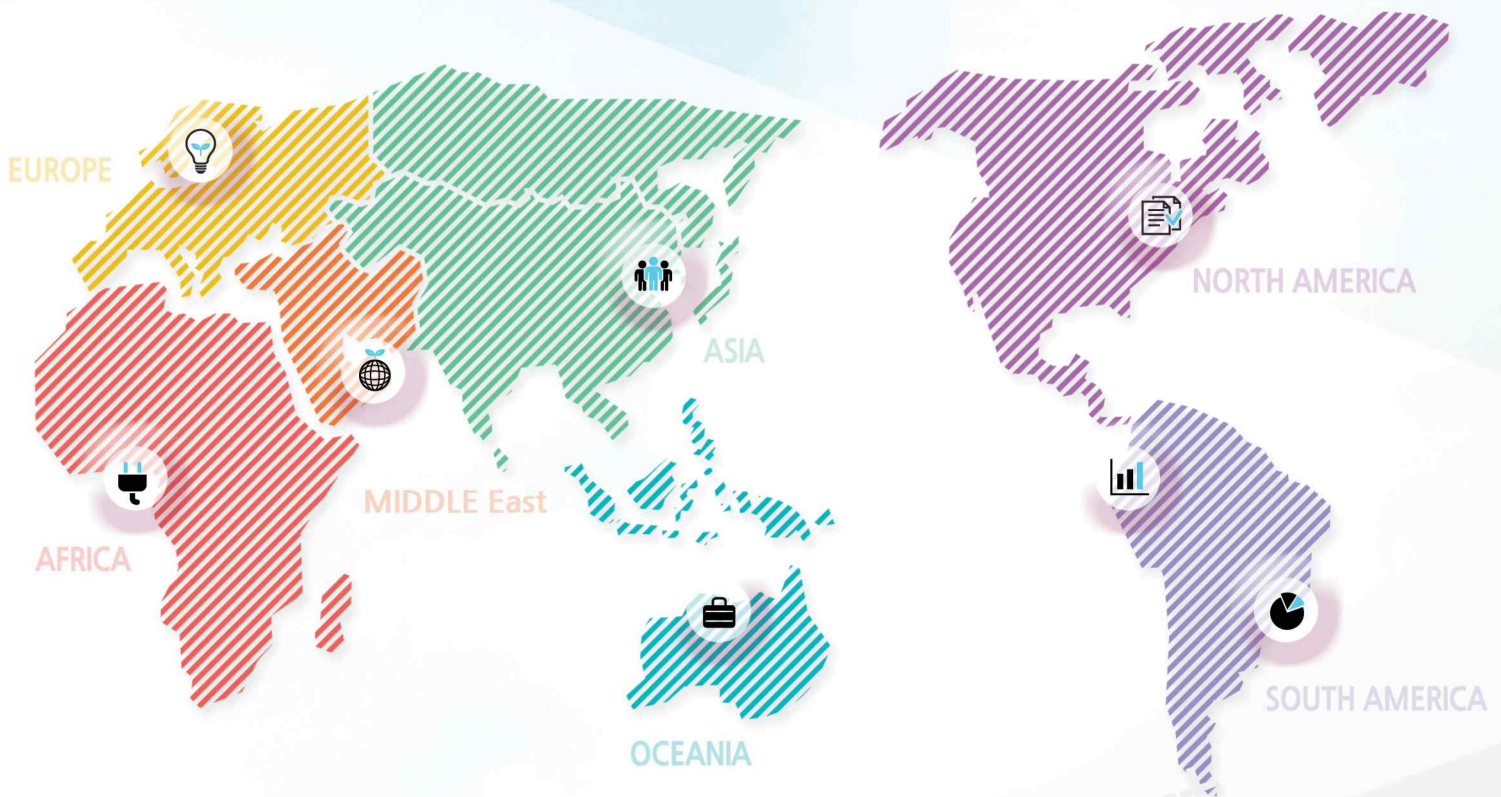




헤알화 가치 하락에 따른 브라질 경제동향 및 우리기업 대응방안

CONTENTS

목 차

요 약 / 1

I. 브라질 헤알화 동향

- 2 | 1. 브라질 환율 변동 분석
- 4 | 2. 향후 전망

II. 헤알화 가치 하락에 따른 브라질 경제 동향

- 5 | 1. 실물경제 동향
- 9 | 2. 현지 진출 기업 반응 및 인터뷰

III. 주요국 반응

- 13 | 1. 네덜란드
- 15 | 2. 미국
- 17 | 3. 스페인
- 18 | 4. 중국
- 20 | 5. 영국
- 21 | 6. 일본
- 23 | 7. 국별 특징 요약

IV. 현지진출 우리기업의 대응책

- 24 | 1. 우리기업 대응책
- 27 | 2. 위기속 기회요인

요 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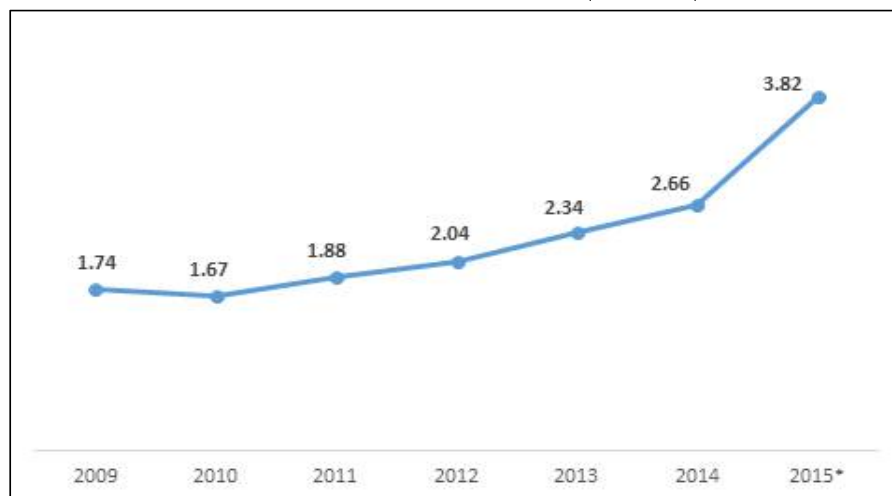
- 브라질 헤알화의 환율은 '09년~'15년 美달러화 대비 두 배 이상 상승함. 이는 세계수요 감소에 따른 브라질 원자재 수출 둔화, 재정악화, 브라질 정치적 갈등에 의한 투자 축소 등으로 인해 브라질 경제가 악화된 것이 요인으로 분석됨.
- 브라질 외환전문가들은 향후에도 헤알화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며 '15년 9월 브라질 중앙은행은 헤알화 약세가 지속될 경우 외환보유고를 사용하여 환율상승을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
- 브라질의 경기침체에 따라 경제성장률, 민간소비증가율, 수출, 수입, 실업률, 외국인투자, 제조업생산증감률 등은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지 진출한 기업들의 피해가 예상됨.
- 對브라질 주요 투자국 전문기관들은 브라질 경기침체 및 헤알화 약세는 향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함. 주요국의 일부 기업들은 오히려 헤알화 약세를 기회로 현지공장설립, 에너지 플랜트시장 및 M&A 시장에 진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중국기업의 브라질 시장개척을 위한 현지 공장건설, 정부협력 등이 가속화 행보를 보이고 있으며, 헤알화 가치 급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으로 바라보고 있음
- 현지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은 타겟 소비계층을 세분화하여 경기침체기에도 소비력이 막강한 고소득층을 공략하는 프리미엄 마케팅 전략을 활용하거나, 중저가 제품을 개발하여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등의 전략이 필요함.
- 또한 브라질 경기침체와 무관하게 성장추세를 보이는 문화콘텐츠시장, 자동차 A/S용 부품시장, M&A시장 등에 진출하거나 對브라질 투자를 활발하게 진행중인 중국 기업들과의 협작을 통해 현지에 진출하는 등의 위기 속 기회요인을 활용해야 할 것.

1. 브라질 환율변동 분석

□ 헤알화 가치 하락

- 지난 '09 ~ '15간 美달러 대비 브라질 헤알화 가치는 지속 하락하여 환율은 두배 이상 상승
- '09년 1달러 = 1.74헤알에서 '15년 11월 12일 기준 3.77헤알로 두배 이상 증가
- 헤알화 가치는 최근 12개월간 72%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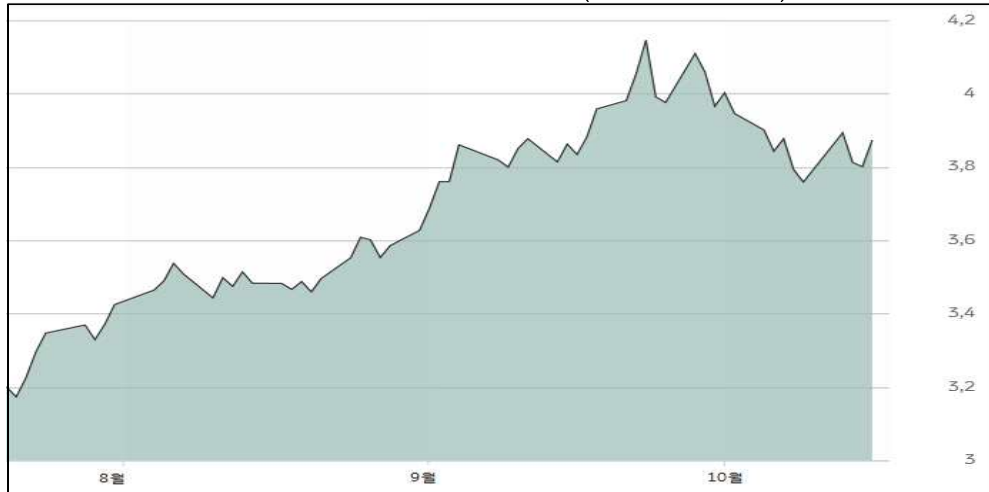
< 달러화 대비 헤알화 환율 변동('09~'15) > 단위 : 헤알



자료원: 브라질 중앙은행

- 헤알화 가치 하락의 원인은 세계수요 감소에 따른 브라질 원자재 수출 둔화, 재정악화, 브라질 정치권 갈등에 의한 투자 축소 등 내·외부적 요인으로 분석됨
 - 브라질 국영석유기업 Petrobras의 대형 불법자금 스캔들에 현 브라질 지우마 대통령이 연루돼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도 하락
 - 재정적자 회복을 위해 증세 및 긴축정책 등 정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경제 활성화 정책 실패
- 브라질 중앙은행 '15년 GDP 성장률 -3%로 전망, 신용평가사 S&P와 Fitch가 브라질 국가신용등급을 연달아 강등
 - * S&P(BBB- → BB+), Fitch(BBB → BBB-)
 - 신용등급 강등 이후 '15년 9월 23일 美 1달러 대비 브라질 헤알화 환율은 4.25를 기록하여 '94년 헤알 플랜*도입 이후 최저치 기록
 - * 헤알플랜 :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94년 브라질이 도입한 화폐 개혁

< 신용강등 전후 헤알화 환율 변동('15년 8~10월) > 단위: 헤알



자료원: 브라질 중앙은행

□ 경제안정기 헤알화 환율

○ 경제안정기('04년~'11년)브라질 환율은 하락세를 유지함

- '브릭스(BRICS) 호황시기'로 불리던 '04년~'11년 사이 브라질 경제는 전반적으로 호황을 누림

* GDP 연평균 4% 성장, 실업률('02, 10.5%→'10, 5.3%), 기준금리('03, 25%→'09, 8.75%)

- 대외적으로 중국경제의 성장으로 브라질산 원자재의 對중국 수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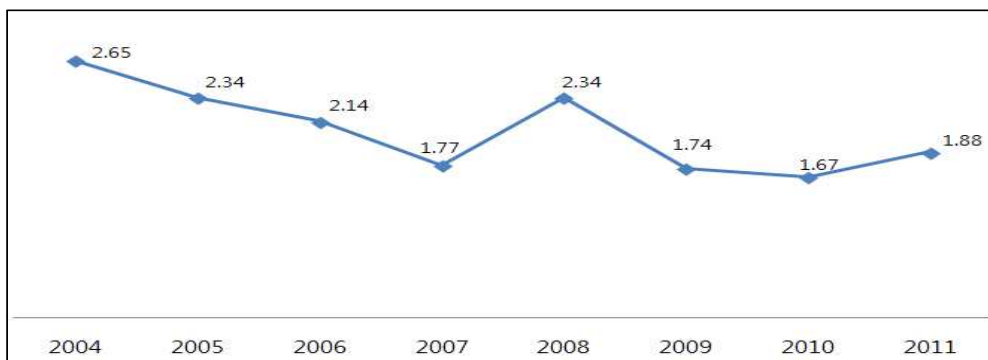
* 對중국 수출증가('04, 54억달러→'10, 443억달러)로 인해 브라질 무역수지는 흑자 지속

- 브라질 경제 안정에 힘입어, 국가신용도가 상승하고 외국인 투자가 급증하면서 달러화 대비 헤알화 환율은 하락세를 지속

* 글로벌 금융위기가 전세계를 강타한 2008년을 제외한 '04년 - '10년 환율은 하락세를 유지 ('04 1US\$=R\$2.65 → '10 1US\$=R\$1.67)

* S&P는 '08년 브라질 국가신용등급을 투자 적격등급인 'BBB-'로 상향조정

< 달러화 대비 헤알화 환율 변동('04~'10) > 단위: 헤알



자료원: 브라질 중앙은행

2. 향후 전망

□ 헤알화의 적정환율

- 美달러 대비 브라질 헤알화의 적정환율에 대한 경제전문가들의 의견은 분분함
 - 수입업자 측에서는 $1\text{US}=\text{R}\$2.5$ 정도의 환율이 적당하는 의견
 - 현지 경제전문가들은 그동안 지나치게 상승된 헤알화 가치를 고려하면 $1\text{US}=\text{R}\$3.5\sim 4$ 정도의 환율이 브라질 상품 수출에 적절하다고 판단
 - S&P 이코노미스트 Joaquin Cottani는 브라질의 높은 인플레이와 낮은 생산성을 고려할 경우, 환율이 $1\text{US}=\text{R}\$5$ 선에 도달해야 현실에 맞는 환율이라고 언급함
 - * 경제성장기인 '04년 - '11년 높은 금리에 외국인 투자가 브라질로 집중된 것이 헤알화 대비 달러화 환율의 지나친 상승을 초래한 주원인으로 지목
 - 적정환율에 대한 분석은 산업별로 상이하나 헤알화 환율이 오르면 환차손으로 인한 브라질의 부채가 증가하여 국가재정에 큰 위험요소로 지목받고 있음

□ 향후 전망

- 브라질 외환전문가들은 향후에도 헤알화 약세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외환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의 불안으로 촉발된 글로벌 주가 하락으로 헤알화 약세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판단
 - 브라질 국내 정치·경제적 위기로 인해 금융시장의 불안 지속, 브라질 정부의 재정균형 때문에 향후에도 헤알화 가치 하락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브라질 정부의 반응

- 브라질 정부는 각종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환율상승을 억제한다는 의지를 표명
 - 지난 8월까지 브라질 중앙은행은 환율 상승에 대해 다소 미온적으로 대응해 왔음
 - “헤알화 약세를 바탕으로 무역수지가 개선되고 외국 관광객이 급증하는 등의 내수 확대 효과가 있다”고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였음
 - 그러나, 9월 24일 환율이 $1\text{US}=\text{R}\$4.25$ 까지 상승하자 “연내 금리 인상 계획은 없으며 향후 외환보유고를 사용하여 적극적으로 환율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긴급성명을 발표함
 - 중앙은행 발표 후 당일 환율은 $1\text{US}=\text{R}\$4.06$ 로 급락함
 - * 브라질 중앙은행은 작년 10월부터 7차례 기준금리를 인상.(11%→ 14.25%)
 - * 현재 브라질은 약 3700억 달러의 외화를 보유하고 있음.

II.

헤알화 가치 하락에 따른 브라질 경제 동향

1. 실물경제 동향

□ 실물경제 동향

< 브라질 주요 경제지표 >

지 표	단 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경제성장률 (전년대비)	%	7.5	2.7	1	2.5	0.1	-1.3
민간소비증가율 (전년대비)	%	6.9	4.1	3.1	2.3	-6.1	-13.8 (1월-8월)
외국인투자금액	US\$백만	48,506	66,660	65,272	64,045	46,215	42,210 (1월-8월)
수출	US\$백만	201,915	256,040	242,578	242,034	225,101	143,650 (1월-9월)
수입	US\$백만	181,768	226,247	223,183	239,748	229,060	134,835 (1월-9월)
제조업 생산증감률 (전년대비)	%	10.2	0.4	-2.3	2.1	-3.2	- 6.9 (1월-8월)
실업률	%	6.7	6.0	5.5	5.4	4.8	8.7 (1월-9월)

* 자료원 : 브라질중앙은행, 브라질 지리통계원(IBGE), World Bank Cross Country Data, Focuseconomics,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 경제성장률

- 브라질의 경제성장 추세는 '10년부터 점차 둔화돼 '15년에는 마이너스 성장 전망
- 브라질은 '02~'10까지 고도성장을 지속하였으나 '11년부터는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 정치적 갈등, 투자심리 및 산업경쟁력 악화 등으로 인해 저성장 지속
-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과 중국경제 둔화에 의해 브라질 경제는 더욱 둔화되는 추세
- IMF는 브라질의 '15년 경제성장률을 -3%로 하향 조정 하였으며 브라질의 경기침체는 '16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라고 분석

○ 소비

- 브라질의 민간소비증가율은 '10년 이후 매년 하락하여 '14년 이후 마이너스 성장 돌입
- 환율 상승으로 인한 생산비용 증가는 제품가격을 상승을 유발, 이로인해 소비 위축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 자동차, 가구, 가전제품 등 내구재 소비 대폭 감소
- 브라질 소비자들의 70% 이상이 이미 가계소비를 줄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국립지리통계원(IBGE)에 따르면, 2015년 1- 8월 기준 브라질 가구 소비는 전년 동기 대비 13.8 % 감소, 전자제품 소비는 11.7%, 자동차는 15.4% 각각 감소함.

○ 외국인 직접투자

- '15년 1~8월 외국인의 브라질 투자는 42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6% 감소
- '15년 1-9월 누적 기준, 對브라질 1위 투자국은 네덜란드로 60억 6,400만 달러를 투자, 17.1%의 비중을 차지함
- 전년동기 투자액은 63억 2,900만 달러로 브라질 전체 FDI의 15.7%의 비중을 차지
- 2위 스페인의 경우 '14년 1-9월 투자액은 59억 6,200만 달러, 10.6%의 비중을 차지. '15년은 56억 7,500만 달러로 16%의 비중을 차지함.
- 3위 미국의 경우 '14년 1-9월 투자액은 85억 8,000만 달러로 15.3%의 비중을 차지했으나 '15년은 44억 8,500만 달러로 12.6%의 비중을 점유.
 - * 스페인(10.6%→17.2%), 네덜란드(15.7%→14.8%), 미국(15.3%→12.8%), 룩셈부르크(11.9%→11.4%)
- Moody's는 “정치 불안, 비리스캔들, 환율 상승으로 인한 해외송금액 축소로 인해 브라질의 투자 매력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

<주요 외국인투자 축소 사례>

	기업명	투자형태	세부 내역
1	Honda (자동차)	공장	동사는 생산 증가를 위해 2015년 초 브라질에 공장을 신규 건설할 예정이었으나 브라질 자동차 시장에서 자동차 관련 판매가 20% 가량 하락하면서 공장 건설 프로젝트를 보류함.
2	Schrader (산업용기자재)	공장	동사는 브라질 생산 단가 상승으로 인한 어려움과 수요 감소로 인해 브라질 공장을 폐쇄하기로 결정함.
3	Valeo (자동차부품)	공장	경제 위기와 판매 감소 때문에 브라질 공장을 폐쇄함.

○ 수출

- 브라질의 수출은 '11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였고 '15년 1~9월 누적 브라질의 수출은 1,436억 달러를 기록, 1,736억 달러를 기록한 전년 동기 대비 약 16.8% 감소
- '15년은 20억 달러 무역적자를 기록한 전년도에 비해 130억 달러 불황형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1위 대두류(1201) 1-9월 누적기준 수출은 192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5.81% 감소
- 2위 철광석(HS Code 2601)은 107억 65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47.11% 감소, 10대 수출 품목 중 가장 많이 감소함.
- 3위 석유(2709)는 93억 달러로 전년도 대비 23.8% 감소, 4위 설탕(1701)은 54억 달러로 21.2% 감소, 5위 육류(0207)는 49억 달러로 7.3% 감소함
- 2015년 1-9월 기준 펄프제품(4703)을 제외한 상위 10위 전 품목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하락함.

○ 수입

- '15년 1~9월 누적 브라질의 수입은 1,349억 달러를 기록, 1,744억 달러를 기록한 전년 동기 대비 약 22.6% 감소
- 환율 급등으로 인한 구매력 악화에 산업 전반에 걸쳐 수입 수요가 감소함
- 수입업체들은 환율 상승비용을 최종 소비자에 전가 또는 브라질산 제품으로 대체 등의 방안을 모색 중이나 단기간 내 환율 급등으로 인해 매출에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

- 브라질 최대 수입품목은 원유를 제외한 석유와 역청류(HS Code 2710)로 '15년 1-9월 수입액은 687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48.26% 감소함.
- 2위는 석유가스(2711)는 479억 달러로 27.6%감소, 3위 원유(2709)는 47억 8767만 달러로 전년대비 60.39% 감소함.
- 4위 자동차 부품(8708) 수입은 43억 달러로 23.88% 감소했으며, 5위자동차(8703)는 41억 달러로 29.14% 감소함.
- 2015년 1-9월 기준, 상위 10위 전 품목이 수입이 전년동기대비 감소함.

○ 생산

- 국립지리통계원(IBGE)에 따르면, 2015년 1-8월 브라질 산업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6.9%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IT 전자제품은 전년대비 29.6%가 감소, 주요 생산 품목 중 감속 폭이 가장 큼.
- 자동차 생산은 21% 감소했으며, 약품은 14.4% 감소, 인쇄출판 14.3% 감소, 기계장비 11.8% 감소, 섬유 11.6% 감소, 가구 10.3%가 각각 감소함.
- 제조업에서 수입부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전반적인 생산비용 상승이 불가피하며, 이로 인해 기업들은 단기생산 목표치를 하향 조정
- * 환율 상승에 따라 올해 1~9월까지 수입산 원료, 부품 가격이 약 16% 상승
- 반면, 수입산 제품을 대체하기 위한 국산품 수요 증가로 인해 장기적으로 브라질 산업발전에 기회요인으로 분석됨

○ 실업률

- 최근 브라질 실업률은 '14 7월 4.9% 최저치를 기록한 후 빠른 속도로 증가함.
- '15 3분기 브라질 실업률은 전년동기(6.9%) 대비 1.8% 포인트 증가한 8.7%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2012년 이래 최고치임.
- 많은 전문가들은 브라질의 경기침체가 2016년 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일부 기관에서는 '16년도 예상 실업률을 8.57%, '17년도 8.94%로 예측함.

* 자료원: Statista

○ 건설·플랜트 프로젝트 시장

- 브라질 건설·플랜트 프로젝트 시장은 Petrobras의 대형비리스캔들과 정부의 공공예산 감축을 위한 인프라 프로젝트 축소로 침체된 상태
 - * 대표적 건설사 Camargo Correa, Odebrecht 등이 비리 혐의로 조사 중
- 지난 8월 상파울루 주정부는 경기침체를 이유로 PPP (민관협력 프로젝트)형태로 발주할 예정이던 32건의 인프라 프로젝트를 취소함
 - * 철도, 지하철, 고속버스 전용도로 등 인프라를 건설하는 프로젝트가 대부분으로 이중 6건은 이미 F/S를 마쳤거나 입찰 단계까지 진행된 프로젝트임

< 주요 취소 프로젝트 현황 >

프로젝트명	내용	규모 (US\$백만)	기간	발주처	취소, 보류사유
전철-13호선, Jade	상파울루와 과를류스 공항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12.2km 길이의 전철 구축	1,658	4년	상파울루 주	경기침체로 인해 상파울루 주정부 우선순위 사업에서 제외됨
전철-7호선, Rubi	도시 시스템, 정거장 현대화, 전동차 수	1,432	12년		
전철-2호선, 녹색	Vila Prudente와 Dutra 구간 전철 구축 (14.4km의 12개 역 확장)	10,098	8년		
고속도로 -sp/079	sorocaba, Itau, Juquia사 이 구간 sp/079의 재건축	118	3년	DER- SP	

2. 현지 진출 기업 반응 및 인터뷰

□ 현지 기업 반응

- (브라질기업)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헤알화 약세로 인해 브라질 업체 109개사의 부채총액이 5,760억 헤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브라질 국영석유기업인 페트로브라스는 올해 3분기 누적 헤알화 가치가 28% 급락함에 따라 부채가 700억 헤알 증가했다고 밝힘
 - 3천억 헤알에 달하는 페트로브라스의 부채 중 80% 가량이 달러화 부채인 것으로 나타나 부채 규모가 위험수위에 달한 상태임.

- 반면 세계적인 광산 개발업체인 발레사는 브라질 최대 자원 수출기업 중 하나로, 헤알화 가치 하락을 통해 수혜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환율 상승으로 금년 1분 부채가 전분기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어난 바 있어, 환율 등락과 관계없이 생산비용 감소에 주력하겠다고 밝힘
- **(외국투자기업)** 브라질 진출 글로벌 기업의 대부분은 현지에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환율 변화에 비교적 덜 취약한 편임
- 과거 외환위기를 다수 경험하여 환율 변화에 크게 동요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자동차, 전자제품 분야 기업의 경우, '로컬 콘텐츠' 의무 준수를 위해 이미 많은 부품을 현지에서 조달
 - 헤알화 약세를 활용, 수출비중을 강화하여 내수부진 및 환차손을 극복 방안 마련

□ 브라질 주재 한국기업 인터뷰

[자동차]

- **(영향)** 엔진, 트랜스미션 등 핵심부품을 한국을 포함한 해외에서 수입 조달하기 때문에 환율폭등으로 많은 손해가 발생
- 동반 진출한 협력사들도 대부분 수입 의존도가 높아 환율 변화에 매우 민감함
 - 소비둔화로 자동차 판매가 하락하여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마당에 환율까지 상승하고 있어 걱정이 배가됨.
- **(대응)** 현지 공급 시스템 확대, 인력감축, 조업시간 단축 등 원가를 최대한 절감하는 방안으로 대응중

[전자]

- **(영향)** 현지 생산품의 부품 중 많은 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현지 조달 부품 계약도 달러 베이스로 납품이 되고 있어 막심한 환차손이 발생하고 있음
- 현지 내수 마켓쉐어는 상승하는데 매출은 줄어드는 상황임
- **(대응)** 매출 하락 등 위기 극복을 위해 인력감축 및 조업 시간 단축으로 인건비와 재고 관리를 하고 있음

- 수익성이 떨어지는 제품은 생산을 중단하는 등 생산품목 조정을 통해 현지시장에 대응하는 중
- 주마다 생산 품목별로 제공되는 인센티브를 활용, 제품 생산 라인을 정비함
- 브라질 국민의 소비력이 약화돼 향후 경제상황을 관망하며 투자 감소 등 긴축 경영을 진행할 예정

[상사]

- (영향) 급격한 환율 하락으로 현지 기업들이 수입을 급감하고 있으며 높은 금리로 투자도 줄이고 있어 제품 판로가 막힌 상황임
 - 최근 수년간 외국투자 증가로 현재 공급이 수요를 초과, 재고가 증가하는 상황이어서 수입 여건은 더욱 악화됨.
- (대응) 당장 현 상황을 극복할 타개책은 마련하기 어려우며, 환율 변화 및 경제 동향을 관망하고 있음
 - ‘브라질 코스트’로 불리는 세금, 높은 물류 및 노무비용 등을 줄이는 방법도 강구
 - 브라질 경제는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는 사이클을 보여 왔기 때문에 경기침체일 때 버티고 틈새시장을 노려야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는 의견임.

[기타 기업]

- 에어컨 부품
 - A사는 제품생산에 필요한 부품을 2달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수입해 음.
 - 환율 상승으로 수입 단가가 높아졌으나 경제 침체로 에어컨 소비가 감소함에 따라 부품 수입 수요도 감소하고 있음
 - 당분간은 수입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환율 상승에 대응할 전망
- 화장품 원료 B사
 - 화장품에 사용되는 염료를 수입하고 있는 B사는 최근 수개월 동안 환율 인상이 지속되자, 환차손을 보상하기 위해 재고 및 신규 수입제품 가격을 일괄 상승함
- 제약원료 C사
 - 약품 원료를 다량 수입하는 C사는 공급업체와 ANVISA(위생감시국)의 등록에 요구되는 비용을 분담하는 협약을 체결하여 비용 부담을 줄임
 - 동사는 환율 상승으로 인한 생산 비용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최종 소비자 가격을 낮출 수 있어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함

○ 자동차 부품 D사

- 브라질에 진출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D사는 공급업체와 협상을 통해 수입제품 일부의 가격 인하를 약속받음
- 가격 조절을 통해 동사는 환율 인상에 의한 손해를 어느 정도 보상받을 수 있었음

[기타 중소기업]

- (영향) 브라질에 수출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부분은 브라질 경제 성장 둔화 및 달러 환율 상승으로 수출 여건이 어려워졌다는 의견임
- (대응) 대부분의 업체는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특별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고 관망 중임
 - 브라질 시장의 규모와 잠재력을 고려, 현재의 위기를 곧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수출 중단이나 수출 지역 변경 등과 같은 선부른 판단은 내리지 않을 계획

III.

주요국 반응

* 對브라질 FDI 규모 및 한-브라질 교역 영향 등을 고려하여 6개국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함

1. 네덜란드

□ 주재국의 對브라질 투자 현황

- 네덜란드는 對브라질 외국인 직접투자 1위국으로 브라질에는 약 250개의 네덜란드 기업이 진출해 있음
 - 금융(ABN Amro, Robobank, ING, Arcadis 등), 소비재(Unilever, Heinenken, C&A), 석유·화학(Shell, DSM 등), 전자·IT(Philips, Getronics)분야의 기업이 진출
 - 브라질 중앙은행에 따르면 브라질에 진출한 네덜란드 기업은 제조업이 6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이후로 금융서비스업 9%, 광업 7%로 뒤를 이음
- 네덜란드의 연간 對브라질 직접투자는 '11년 크게 상승한 이후로 계속 감소 추세
 - 브라질의 경제 안정기('04년~'11년) 이후 전년 대비 투자 감소 추세
- '15년 1-9월 네덜란드의 對브라질 외국인 직접투자는 60억 6,400달러로 전년 대비 약 4.19% 감소

<네덜란드의 FDI 추이>

(단위 : US\$백만, %)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브라질	투자액	6,702	17,582	12,213	10,511	8,791
	전년비	2.8%	162.3%	-30.5%	-13.9%	-16.3%
전 세계	투자액	68,358	34,789	5,235	56,926	40,809
	전년비	160.2%	-49.1%	-84.9%	987.4%	-28.3%

출처 : UNCTAD, 브라질 중앙은행

□ 네덜란드 주요기업 및 전문기관 의견

- (Akzo Nobel, 페인트·코팅) 브라질 시장 침체가 판매에 영향
 - 환율가치 변동 및 원가절감으로 고성능코팅 영업이익은 올해 들어 증가 추세이나, 브라질 시장에서의 판매량은 둔화되었다고 밝힘.

- CEO 톤 베흐너(Ton Buechner)는 현재 브라질은 깊은 경기침체에 빠져있고, 중국 역시 성장세가 둔화되어 당분간 이런 상태가 지속될 것임을 전망 ('15.7.21. 인터뷰)
- (Arcadis, 엔지니어링 컨설팅) 브라질에서의 매출 감소
 - Arcadis 역시 Petrobras의 비리에 연루되어 타격 입음.
 - 닐 맥아더(Neil McArthur) CEO는 브라질의 경기 전반과 에너지 산업 침체로 인해 2015년 2분기 매출이 17% 감소했다고 밝힘.
- 네덜란드 ABN Amro 은행은 공식적으로 브라질 경제가 불황에 돌입했다고 발표
 - 전반적으로 부진한 경제상황과 정치적 혼란으로 헤알화 가치 하락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
 - * 네덜란드 은행 ABN Amro은 '16년 美달러화 대비 브라질 헤알화 환율을 3.8로 전망
- (Royal Dutch Shell, 석유화학) 브라질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투자 계속할 전망
 - Royal Dutch Shell은 BD Group을 인수하면서 브라질의 심해유전의 가장 큰 해외 투자자로 자리매김
 - Royal Dutch Sell의 벤 반 베어든(Ben van Beurden) CEO는 “심해부문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브라질 투자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밝힘. ('15.4.8. 인터뷰)
- (SBM Offshore, 해양플랜트) 현지 국영기업과의 비리 연루에도 사업 추진
 - 브라질 경기침체로 인한 타격보다는 브라질 국영석유기업인 Petrobras의 입찰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것이 밝혀짐에 따른 타격이 더 큼.
 - * 브라질 정부로부터 2.5억 달러의 패널티를 부과받음.
 - 현재 진행 중인 두 FPSO(부유식 원유생산 저장 하역 설비) 건설은 경기침체 및 비리연루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하고 있음.

2. 미국

□ 미국의 對브라질 투자 현황

- 미국은 對브라질 직접투자규모 2위국으로 제조업이 약 4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제조업 중에는 화학(31%), 기계류(10%), 자동차 등 수송기계(9%)가 높은 비중을 차지
- 미국의 對브라질 외국인 직접투자는 '12년 이후 전년 대비 감소 추세를 보임
 - 반면 미국의 對전세계 투자는 '13년, '14년 전년 대비 증가 추세로 對브라질 투자와 상이하게 나타남
- 미국의 '15년 1-9월 對브라질 FDI는 44억 8,5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약 47.7% 감소

<미국의 FDI 추이>

(단위 : US\$백만, %)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브라질	투자액	6,144	8,909	12,310	9,021	8,537
	전년비	25.3%	45%	38.1%	-26.7%	-5.3%
전 세계	투자액	277,779	396,569	311,347	325,343	336,943
	전년비	-3.5%	42.7%	-21.4%	4.4%	3.5%

출처 : UNCTAD, 브라질 중앙은행

□ 미국의 최근 對브라질 주요 투자 동향

- Microsoft社, 마나우스(Manaus)시 공장 Flextronics社에 매각
 - Microsoft社는 지난해 Nokia社 인수와 함께 매입한 마나우스 시 내의 Nokia 스마트폰 공장을 올해 10월 싱가포르의 Flextronics社에 매각
- 포트리스 투자그룹(Fortress Investment Group), 브라질 헤지펀드 폐쇄
 -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 Michael Novogratz가 브라질에서 운영하던 포트리스 투자그룹의 매크로 헤지펀드가 Petrobras社 스캔들 및 브라질 경기 악화로 1억 달러 규모의 손실을 기록
 - 이에 따라, 브라질 관련 헤지펀드는 폐쇄되었으며, 노보그라츠 매니저도 사임을 표명

- 농업화학업체 FMC, 브라질 내 자회사 매각
 - 브라질의 경기 악화로 지난 3분기 영업이익이 하락한 미국의 주요 농업용 화학제품 생산업체 FMC는 브라질 내 자회사인 Consagro Agroquimica를 매각
 - 향후 수익성이 높은 제품들에 전념할 것이라고 발표
- Fiat-Chrysler社, 약 24억 달러 규모 Jeep 공장 가동 개시
 - '15년 4월 Fiat-Chrysler社는 브라질 페르남부쿠 주(Pernambuco)에 약 24억 달러 규모의 Jeep 모델 공장을 개소
 - Jeep Renegade가 브라질에서 '15년 올해의 자동차로 꼽히는 등 인기 있는 차종으로 자리 잡으며, 최근 해알화 하락에 따른 여파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
- SunEdison社, 브라질 Renova社와 1 GW 태양광 합작 프로젝트 계획
 - '15년 8월 미국의 태양광업체 SunEdison社는 브라질의 재생에너지 개발업체인 Renova社와 합작투자하여 1GW 규모의 태양광 프로젝트 개발 계획을 발표
 - SunEdison社는 최근 Renova社의 지분 15.87%를 매입한 바 있음
 - 브라질 태양광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며 중국, 대만, 유럽 등의 업체들과 미국의 SunEdison社 역시 브라질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GE社, 지난해 말 브라질에 5억 달러 규모 R&D 센터 개소
 - 지난해 11월 GE社는 Petrobras, Statoil 등 주요 에너지기업들과 심해 자원개발에 협력할 수 있는 5억 달러 규모의 R&D 센터를 리우데자네이루에 개소

□ 미국의 전문기관 의견

- 모니카 드 볼(Monica De Bolle),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만약 재무 조정이 없다면 브라질의 현 상황은 냉혹하다며, 브라질이 2000년대 초반 이후 최고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
- 닐 시어링(Neil Shearing), Capital Economics 신흥시장 수석 이코노미스트
 - 브라질이 2007년에서 2011년까지 원자재 수출로 벌어들인 수익을 모두 소진한 것도 모자라 엄청난 부채를 축적해 재정 상황이 통제 불가
- 알베르토 라모스(Alberto Ramos), Goldman Sachs 중남미 수석 이코노미스트
 - 브라질은 정치적 불확실성 가중을 비롯해 현재 9년래 최고치의 금리와 더불어 고용시장도 불안하여 경제가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3. 스페인

□ 스페인의 對브라질 투자 현황

- 스페인의 對브라질 연간 FDI는 '11년 이후 감소하다가 '14년 상승
 - 주요 투자분야로는 1위 금융으로 총 투자액의 67.8%에 해당하며, 2위는 토목으로, 금융과 토목 투자액이 전체 투자 90%에 달하는 높은 비중 차지
- '스페인의 '15년 1-9월 對브라질 외국인 투자액은 56억 7,5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약 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15년 2분기까지 1위 투자 분야는 자동차로(1억 2,638만 유로) 전년도 1위 투자 분야가 금융, 건설업이었던 것과는 상이함이 관찰됨
 - 이는 브라질의 재정악화, 헤알화 가치 하락으로 인해 인프라건설 시장이 축소하여 건설, 프로젝트 파이낸싱 분야의 투자가 축소된 것으로 해석됨
 - * 전년도 주요 투자분야인 금융은 180만 유로로 전년 동기대비 0.7%에 불과

<스페인의 FDI 추이>

(단위 : US\$백만, %)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브라질	투자액	1,524	8,593	2,523	2,246	5,958
	전년비	-55.4%	463.8%	-70.6%	-10.9%	165.2%
전 세계	투자액	37,844	41,164	-3,982	25,829	30,688
	전년비	189.5%	8.7%	-109.6%	748.6%	18.8%

출처 : UNCTAD, 브라질 중앙은행

□ 스페인의 전문기관 의견

- 對브라질 투자 스페인 기업 수익감소 우려
 - Telefonica(통신), Banco Santander(금융)같은 스페인 대기업의 브라질 진출이 활발한 상황에서 헤알화 하락에 따른 수익감소는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
 - * 브라질 진출 스페인 주요기업: Abertis(토목건설, 엔지니어링), Acciona(신재생 에너지), Amadeus(IT 솔루션), BBVA(금융), Sabadell(금융), Iberdrola(에너지), Mapfre(보험), OHL(건설), Repsol(정유), Roca(도기)
- 브라질 인접 국가로의 경기침체 전이 우려
 - 헤알화 하락, 재정악화가 심화될 경우 브라질 경제 영향권에 있는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등 인접 국가로 경기침체가 전이될 것으로 봄

- 브라질을 포함한 중남미 투자 비중이 높은 스페인 입장에서는 브라질 경제위기가 중국발 위기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스페인의 對브라질 투자 감소 전망

- 스페인은 2014년부터 중남미, 아시아와 같은 신흥국 투자에서 유럽, 미국 등 안정적인 선진국 투자에 집중하고 있음
- 이러한 경향이 헤알화 하락 등 브라질 리스크 상승과 함께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 더욱이 현재 호세프 정부가 추진중인 금융거래세(CPMF) 재도입으로 스페인 투자자의 자금 회수 움직임이 커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

* CPMF : 브라질 정부가 금융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거래액의 약 0.2 - 0.38%를 부과함

4. 중국

□ 중국의 對브라질 투자 현황

- 중국의 對브라질 외국인직접투자는 '10년 이후 감소하다가 '14년 전년 대비 약 636% 상승
- 2014년까지 중국 기업의 對브라질 직접투자 총액(누계)은 28억 3,289만 달러
 - 자동차, 에너지, 전력시설, 인프라 시설, 금융 등 영역에서 투자진행
 - 최근 국가전망공사(State Grid), 중국공상은행 등의 국유기업들이 브라질 시장개척에 적극 나서고 있음.

<중국의 FDI 추이>

(단위 : US\$백만, %)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브라질	투자액	395	179	185	110	840
	전년비	375.9%	-54.6%	3.3%	-40.5%	636.6%
전 세계	투자액	68,811	74,654	87,804	101,000	116,000
	전년비	21.7%	8.4%	17.6%	15.6%	14.8%

출처 : UNCTAD, 브라질 중앙은행

- 최근 중국-브라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공업, 에너지, 인프라 시설, 광업, 농업 및 축산업, 서비스업 등의 영역에서 지속적인 투자 및 협력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

* 2014년 7월 시진핑 주석, 2015년 5월 19일 리커창 총리가 브라질 방문

- (전력) 2014년 7월, 중국 국가전망공사는 브라질 국영 전력회사 Eletrobras와 브라질 Belo Monte 지역의 초고압 송전 전송망 건설 협약 체결
- (인프라) 2014년 7월 시진핑 주석 방문 당시, 상파울루 주 Campinas시 차량 모터 및 기계용 장비 생산 공장 건설을 위한 중국과 브라질 기업 간 파트너 협정 체결
- (금융기관) 중국국유은행이 브라질 국영은행과 533억 달러 규모 투자펀드를 조성하는 형태로 인프라 투자에 나설 계획
 - * 2014년 7월 중국 수출입은행은 브라질 광산업체 Vale에 50억 달러 상당의 금융 지원을 약속
- (자동차) 중국 자동차 업체들(Chery, JAC) 브라질 현지생산시설을 적극 구축
 - * Chery : 브라질에 7억 달러를 투자하여 대형 산업단지를 건설할 계획
 - * JAC : 브라질 현지에 공장을 건설하고 내년부터 생산을 진행할 예정

□ 중국의 전문기관 의견

- 브라질 경제불안과 헤알화 가치 급락은 중국의 대외수출에 악영향
 - 올해들어 브라질, 러시아, 말레이시아 등 주요 경제신흥국의 통화 가치 급락은 대외 수요감소의 원인으로 작용, 중국 수출 감소로 귀결(중국신문망)

▶ 중국-브라질 교역현황('15년 1-8월 기준)

- 브라질은 중국의 13대 교역국으로 총 교역액은 489.2억 달러(전년동기대비 18.9% 감소)
- 중국의 對 브라질 수출은 198.4억 달러로 19위(전년동기대비 12.53% 감소)
- 중국의 對 브라질 수입은 291.0억 달러로 9위(전년동기대비 22.72% 감소)

- 반면, 헤알화 가치 급락은 중국 기업의 인수합병 기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브라질 전문경영인협회 웨하이핑(岳海平) 이사장)
 - 브라질 경제불안과 헤알화 가치 하락은 對브라질 중국제품 수출에 악영향을 끼치나 중국기업의 對브라질 투자비용은 하락하여 투자기회 예상
 - 브라질 정부에 국가 전반의 구조 개혁과 적극적인 외국자본 유치 및 기업 인수합병(M&A) 등을 기대하는 분위기
 - 중국 4대 은행의 하나인 중국은행의 장광화(張廣華) 브라질 지점장은 “브라질의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對브라질 투자가 지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힘

5. 영국

□ 영국의 對브라질 투자 현황

- 영국은 '12년 이후 對 세계 FDI를 회수(disinvestments)하는 추세이며 '13년 부터 투자유량(flow) 마이너스를 나타냄
- 영국의 對브라질 투자는 '14년에는 전년 대비 약 43% 상승하였으나 '11년 이후 대체로 감소 추세를 보임
- FDI Martket에 따르면 '15년 8월까지 영국의 對브라질 규모는 9,280만 달러로 '14년 투자규모 약 17억 달러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임.

<영국의 FDI 추이>

(단위 : US\$백만, %)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브라질	투자액	1,030	2,749	1,978	1,203	1,726
	전년비	48.9%	166.8%	-28%	-39.1%	43.4%
전 세계	투자액	46,633	107,801	28,939	-14,972	-59,628
	전년비	126.7%	131.1%	-73.1%	-151.7%	-299.4%

출처 : UNCTAD, 브라질 중앙은행

□ 영국 주요기업 동향

- (금융기관) 영국 은행들, 브라질 시장 철수 시작
 - 영국의 HSBC은행은 '15년 9월 브라질 은행 방코 브라데스코(Banco Bradesco)에 자사의 브라질 사업부문을 33억 4천만 파운드에 매각할 것을 발표한 바 있음.
 - 이어 영국의 바클리즈(Barclays) 은행 또한 '15년 9월 자사의 브라질 사업장들 중 투자은행 사업부문을 매각할 것으로, 바이어를 찾고 있다고 발표
- * 상기 두 영국계 은행 그룹들은 영국기업들의 對브라질 투자 및 인수합병(M&A) 거래의 약 절반 가까이를 중개해온 금융기관들로서, 향후 영국의 對브라질 투자 감소 예상

○ (기업) 브라질 진출 영국기업들은 사태 관망 중

- 영국의 종합 에너지 사업자 BP는 '15년 10월 브라질에서의 사업 규모 축소 또는 감원과 같은 극단적인 결정을 내릴 계획은 없다고 밝힘
- '15년 10월 이후 헤알화 가치가 다소 안정화되었으므로, 당분간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추이를 관망할 것이라고 함.

□ 영국의 전문기관 의견

○ 영국 경제전문가 헤알화 위기 완화된 것으로 평가

- 경제전문지 FT 및 가디언(the Guardian), 타임즈(the Times) 등 주요 일간지는 '15년 10월 브라질 재무장관 재신임 선언으로 인해 사태가 호전되고 있음을 보도
- 영국의 헛지펀드 애큐릿 캐피털(Accurate Capital)은 브라질 헤알화의 “날개없는 추락”은 끝났으며 '15년 10월 부터 통제 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
- 브라질에 진출한 주요 영국계 기업들은 금융과 에너지(석유, 가스)분야로 제조업이 극히 적어 현지 소매 내수 붕괴에 따른 단기적 영향은 적을 것으로 분석

6. 일본

□ 일본의 對브라질 투자 현황

○ 일본의 對브라질 FDI는 '12년부터 감소 추세

- 이는 '12년, '13년 일본의 對세계 투자가 연속 상승한 것과 대비됨
- 그러나 일부 일본 기업들은 오히려 엔화에 대해서도 헤알화 약세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투자관점에서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전망

<일본의 FDI 추이>

(단위 : US\$백만, %)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브라질	투자액	4,316	8,290	4,113	4,037	3,316
	전년비	15.0%	92.1%	-50.4%	-1.8%	-17.9%
전 세계	투자액	57,223	108,808	122,355	135,049	119,727
	전년비	-23.3%	90.1%	12.5%	10.4%	-11.3%

출처 : 재무부 국제수지상황 근거 JETRO 정리 자료

- 일본 기업의 해외 진출 의욕은 여전히 왕성하며, 올림픽을 앞둔 브라질에 대해서도 경황을 냉정하게 판단하는 와중 관심을 가지고 있음
 - (혼다) 상파울루주에 약 442억엔을 투자하여 연간 생산능력 12만대의 신규 사륜차 공장 건설하고 '16년 3월 가동 예정
 - (닛산) 최초 남미 공장을 리우데자네이루주에 건설하여 향후 연 20만대 생산 예정
 - (히타치전기) 미국 농기계 대기업 디아와 합작하여 약 1억달러 투자, 굴삭기 신 공장 건설
 - (일본소다, 쿠미아이화학공업, 스미토모상사 등 일본 농약회사 7개사, M&A) 2015년 브라질 농약 판매 회사 이하라프라스 출자, 출자 총액은 약 120억 엔
 - (오르론, M&A) 2014년 브라질 의료기기업체 NS Industria de Aparelhos 인수, 인수금액은 약 100억 엔
 - (오오츠카제약, M&A) 2014년 브라질 최대 건강·기능성식품기업 자스민사 인수를 발표, 인수금액은 수십억 엔에 이를 것으로 보임

□ 일본 기업 및 전문기관 의견

- 일본기업의 해외 M&A 관련 움직임이 다대하던 '15년 초 일본담배산업주식회사(JT)는 향후 투자 대상국 중 하나로 브라질을 거론하며 투자의사 밝힘
 - * 일본 기업 해외 인수 총액 : '15년 2월 24일 기준 280억 달러(3조 3,547억 엔), 2006년 이후 동기 대비 사상 최대를 기록 (블룸버그 발표)
- 반면, 일본경제신문 Brown Brothers Harriman사의 무라타 마사시 수석통화전략가는 브라질 경제 환경의 개선은 당분간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
 - 현재 헤알화 가격은 최저 가격에 가깝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 브라질 경제를 부정적으로 관측

7. 국별 특징 요약

- (투자지속) 중국
 - 중국은 '14년, '15년 브라질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간의 경제 교류에 속도를 높여 브라질 시장에 활발하게 진출 중임
 - 중국기업의 브라질 시장개척을 위한 현지 공장건설, 정부협력 등이 가속화 행보를 보임
 - * '14년 7월 시진핑 주석, '15년 5월 리커창 총리 브라질 방문
 - 헤알화 가치 급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으로 바라보고 있음
- (관망) 일본, 네덜란드, 영국
 - 일본 기업은 올림픽을 앞둔 브라질에 대해 경황을 냉정하게 판단하는 와중 시장진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일본 : 브라질 M&A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의료 관련 기업 인수(오오츠카제약 : '14년 브라질 자스민사 인수, 오르른 : 브라질 의료기기업체 NS Industria de Aparelhos 인수)
 - 네덜란드 기업들은 브라질 경제가 불황에 돌입했다고 보고 있으나 일부 기업은 경기침체에도 투자를 계속할 것으로 전망
 - * Royal Dutch Shell : 동사 CEO 벤 반 베어든(Ben Van Beurden)은심해부문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브라질 투자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밝힘
 - 영국의 기업들은 브라질 헤알화 가치가 비교적 안정세로 접어들었다고 판단하여 사태를 관망중이라고 밝힘
 - * 브라질에 진출한 영국계 기업들 대부분이 금융과 에너지 분야로 현지 소매 내수 붕괴에 다른 단기적 영향은 적을 것으로 분석
- (투자감소) 스페인, 미국
 - 스페인은 '14년부터 중남미, 아시아와 같은 신흥국 투자에서 유럽, 미국 등 안정적인 선진국 투자 비중을 늘리고 있음.
 - 브라질에 진출한 미국의 주요 제조업체는 브라질 공장을 매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자동차, 에너지분야 기업들은 투자를 늘린 것으로 나타남
 - * 축소 : Microsoft 마나우스공장 매각, 농업화학업체 FMC 브라질 자회사 매각
 - * 투자 : SunEdison社 브라질 1GW 태양광 프로젝트 계획, GE '14년 말 브라질에 R&D센터 개소
- 對브라질 투자 주요 금융기관들은 브라질 시장에서 철수하는 것으로 조사됨(영국 HSBC은행, 바클리즈(Barclays)은행, 미국 포트리스 투자그룹 등)
- 헤알화 약세는 향후 장기화될 것으로 평가
 - 조사국의 경제전문가들은 현재 브라질의 헤알화 약세 및 브라질의 경기침체가 당분간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

1. 우리기업의 대응책

○ 프리미엄 마케팅 전략을 통한 브라질 고소득층 공략

- 소비재시장의 중산층의 소비위축이 불가피하지만 상위 5% 고소득층을 겨냥한 프리미엄 제품 시장은 여전히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됨
- 브라질 고소득층은 규모는 작지만 식품, 자동차 등 시장에서 고가제품 구매를 통해 특권의식을 즐기며 막강한 소비력을 자랑하는 등 경제 불황 시에 오히려 진가를 발휘함
- 일례로 고급인테리어시장 사치품 시장은 브라질 소비가 대폭 감소한 '14년 성장추세를 보였으며 대부분의 산업과 대조를 보임
- 브라질 고소득층을 겨냥하여 품목의 변화를 주고 프리미엄 마케팅을 활용하는 등의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음

○ 저가형 제품을 선보여 시장점유율 확대 전략 필요

- 침체기에 적합한 저가제품을 선보여 위축된 소비시장 진입
- 브라질 자동차 시장에서는 저렴한 가격의 경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현대자동차의 HB20 경차가 지난 6월 1만 4,102대 판매되어 브라질시장에서의 현대자동차의 시장 점유율이 10%로 사상 최고치 기록
- 중국 IT기업 샤오미의 경우 저가형 스마트폰 '홍미2'를 브라질에 출시, 발매일에 홈페이지가 1시간 이상 마비되는 등 선풍적인 인기를 누림

* 출처 : 한국무역협회 Trade Brief

○ '고환율 시대' 도래에 대비한 방안 강구

- 현지 경제인들은 1US\$=R\$4 안팎의 환율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
- 현지에 진출한 조립공장의 경우 고환율에 대비해 현지 부품 공급업체를 늘려 수입부품의 비중을 줄이는 방안 필요
- 또한 무관세, 또는 관세 감면 혜택을 받는 국가로부터의 수입, 수출 방안 모색하여 환차손 최소화

* 메르코수르 국가간 무관세 및 라틴아메리카통합연합(ALADI)간 특혜관세 활용

* 자동차 부품업체 : 내수공급과 수출이 동시 가능한 글로벌 부품 모델 생산을 확대, 현지생산 비중 및 국산부품 사용 확대를 통해 수입 의존도 감소

○ 침체된 브라질 내수시장을 피해 중미지역 시장개척을 통한 수출방안 모색

- 최근 원자재가격 하락으로 인해 중남미 경제가 전체적으로 부진을 보이고 있으나 자원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중미국가들의 경제성장세가 두드러질 전망
- 중남미 지역 내년 예상 경제성장률은 0.7%인것에 비해 중미지역 성장률은 4.2%로 중남미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분석됨
- * 중미지역 '16년 예상 경제성장률 : 파나마 6%, 도미니카공화국 5.2%, 니카라과 4.5%, 쿠바 4%, 온두라스 3.3%, 멕시코 2.5%, 아이티 2.5%, 엘살바도르 2.3%
- 브라질에서 생산된 제품을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중미지역으로 수출하여 현지수요 침체에 대응
- * 자동차 : 경기 호황을 누리고 있는 멕시코 시장을 겨냥, 다양한 모델의 자동차를 수출

○ '경제 회복 사이클' 기다리며 장기적인 전략 수립 필요

- 브라질은 1차 산품 중심의 경제로 과거부터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호황과 불황을 반복해옴
- 타기업이 투자를 철수하는 침체기에 현지 시장 점유율과 브랜드 충성도를 높여 향후 경제 회복 시 수확을 거둬들이는 전략이 필요함
- 조업시간 단축, 재고관리 등을 통해 각종 비용을 줄여 현재의 난관을 이기고 경제 호전 및 환율 하락을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함
- * LG전자의 경우 '95년 브라질 시장 진출 당시 현지 외환위기를 맞이 하였으나 철수하지 않고 현지부품 공급률을 높여 위기를 극복, 이후 브라질에서 국민 브랜드로 인지도 상승

<브라질 진출기업 경제위기 대응사례>

1. 위기에도 투자를 지속한 사례

기업명	Randon	취급품목	자동차부품
극복전략	‘자전거는 페달을 멈추면 넘어질 수 있다’는 신념으로 위기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지속함		
세부내용	동사 회장 David Abramo Randon은 글로벌 경제위기로 매출이 급락하던 2008년 당시, 경기 호전될 것에 대비하여 기술 및 신소재 개발, 직원 훈련 강화 등 투자를 지속하면서 버티기 전략을 구사함. 정부의 각종 경기 부양 전략에 힘입어 얼마 지나지 않아 브라질경제는 호전되었으며, Randon은 위기를 극복함.		

2. 인재발굴 투자, 불필요한 경비 최소화

기업명	Herval	취급품목	가구
극복전략	‘인재 개발에 투자해야 회사가 산다’는 생각으로 감원은 지양하고 오히려 인재 발굴에 투자를 집중함.		
세부내용	설립한지 55년된 Herval 그룹은 온라인 판매업체 TaQif, If Solucoes Planejadas, Baden Sleep Comfort, IPlace 등 다수의 기업을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으며 경기침체, 하이퍼인플레이션, 천문학적 수준의 금리 등 다양한 경제상황을 겪었으며, 그때마다 감원 대신 오히려 인재 개발에 아낌없이 투자 하는 동시에 각종 불필요한 경비를 최대한 줄여 위기를 극복함.		

3. 취급 품목의 다양화

기업명	S7 Study	취급품목	관광, 유학
극복전략	취급 품목의 다양화를 통한 위기 극복		
세부내용	2008~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 당시, 관광객 수요가 줄어들자 경비가 많이 발생하는 오프라인 매장대신 온라인 판매 매장을 늘려 경비 절약에 성공함 또한 관광상품 뿐 아니라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유학 프로그램도 개발, 상품을 다양화하는 전략으로 위기를 극복함		

2. 위기속 기회요인

○ 경제 구조조정 과정에서 증가하는 'M&A'매물 관심 확대

- 현재 브라질 헤알화 환율 상승으로인해 달러 베이스 매물 가격이 하락하고 있음
- 현지 시장의 호조'M&A' 매물 기업을 매입하여 브라질 시장에 투자 진출이 용이할 것으로 전망

* 컨설팅 전문업체 Aons은 오일&가스, 보건, 에너지,기술, 서비스 분야 다수 업체들이 지분 매각 등을 통한 투자 유치를 희망하고 있어 향후 2년간 다수의 M&A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

○ 환율 변화에 영향이 적은 영화, 애니메이션 등 문화 콘텐츠 시장 진출

- 문화 콘텐츠 시장은 경기침체에도 성장하는 시장으로 돈이 많이 드는 여행 대신 TV나 영화를 관람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
- 최근 애니메이션 '뽀로로', 드라마 '해피엔딩' 등이 對 브라질 수출계약 체결

○ 자동차 A/S용 부품 시장 진출 가능성 증가

-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에서 운행 중인 차량 수는 3420만대로 꾸준한 유지 보수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
- 신차 판매는 줄었으나 중고차 수리 보수의 수요는 증가함에 따라 애프터마켓을 타깃으로 하는 제품수출 고려

○ '민관공동투자사업(PPP)'의 진출 사업 강화

- 정부 재정 악화에 따라 'PPP'프로젝트 수는 감소했으나 참가 조건 완화 및 인센티브는 증가함
- 2년 내에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 건설 관련 각종 정부입찰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측
- 특히 비싸진 전기요금으로 인해 신재생 에너지(풍력, 태양력)와 스마트그리드에 대한 관심이 높음

○ '한국의 자본과 기술+브라질의 시장'의 협력모델 지속 발굴

- 경제 침체에도 성장세를 지속하는 브라질 제약분야에서 'PDP' 협력으로 제약 시장 진출
- 브라질은 중남미 최대 제약 산업 시장이며 제약시장 규모는 '13년 26조원에서 '20년 60조원으로 성장 예상
- * PDP(Production Development Partnership)란: 해외 제약기업과 브라질 제약사가 합작투자를 통해 현지에서 제품을 생산할 경우 브라질 정부가 일정 물량을 구매해주는 제도

○ 브라질 투자에 활발한 중국기업과 협력하여 브라질 프로젝트시장 진출

- 중국은 브라질과 200억 달러 규모의 협력기금을 설치하기로 발표하고 제조업 육성 및 물류환경 개선에 사용할 예정 * 연합뉴스(15. 6. 28)
- '15년 5월 중국의 리커창 총리와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은 브라질리아에서 만나 양국 국영은행간 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펀드 조성에 합의
- * 양국의 협력금은 브라질의 철도건설 프로젝트, 댐 건설 프로젝트 등에 사용될 예정

2015년 KOTRA 발간자료 목록

□ GMR (Global Market Report)

번 호	제 목	번호부여 일
15-001	경쟁국 對유럽 M&A 현황 및 시사점 - 1편 -	2015.1
15-002	경쟁국 對유럽 M&A 현황 및 시사점 - 2편 -	2015.1
15-003	최근 우리나라 FTA 확대와 해외진출 전략	2015.1
15-004	주요국 온라인 해외 직구시장 동향	2015.1
15-005	2015년 1분기 KOTRA 수출선행지수	2015.1
15-006	RCEP 협상 동향과 참여국별 전략 및 산업계 반응	2015.1
15-007	아베노믹스 2년 성과 진단 및 향후 전망	2015.1
15-008	그리스 총선 결과에 따른 정책 방향 및 시사점	2015.1
15-009	TPP 협상이 섬유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2015.2
15-010	주요국 정상신년사로 바라본 2015년 글로벌 경제통상환경	2015.1
15-012	엔저 장기화에 따른 일본기업 동향 및 우리기업의 대응방안	2015.3
15-013	'재부상 하는 인도' - 2015~2016 회계연도 인도 예산안 주요내용 및 우리기업 진출 기회 분석	2015.3
15-014	한-뉴질랜드 FTA에 따른 현지반응과 중소기업 수출유망품목	2015.3
15-015	2014년 대한 수입규제 동향과 2015년 전망	2015.3
15-016	2015년 2분기 KOTRA 수출선행지수	2015.3
15-017	미국 금리인상 전망과 수출 기상도	2015.4
15-018	일본 식품시장 트렌드 및 진출 가이드	2015.4
15-019	아세안 역내 경제통합에 따른 주요국 동향 및 시사점	2015.4
15-020	유가하락에 따른 산유국 시장동향 분석 및 시사점	2015.4
15-021	TPP 협상이 전자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2015.5
15-022	유럽 실버시장 현황 및 진출방안(1)	2015.5
15-023	유럽 실버시장 현황 및 진출방안(2)	2015.5
15-024	EU 에너지연합 기본전략계획안 내용 및 시사점	2015.5
15-025	2015 영국 총선 결과에 따른 정책방향 및 시사점	2015.5
15-026	TPP 이후 한·일 對美 수출 전망	2015.6
15-027	세계시장의 히트 환경상품	2015.6
15-028	한-중미 FTA와 우리기업 진출기회	2015.6
15-029	2015년 3분기 KOTRA 수출선행지수	2015.7
15-030	무역사기 발생현황 및 대응책	2015.7
15-031	시장 점유율 분석을 통한 한국 수출 시장 재조명	2015.8
15-032	주요국 천연화장품 시장동향	2015.8
15-033	경제제재 1년, 러시아 시장 새롭게 접근하자	2015.8

15-034	2015년 상반기 대한 수입규제 동향과 향후 전망	2015.8
15-035	韓日 제3국 상생협력 진출전략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2015.8
15-036	동유럽 의료기기 시장 동향과 진출방안	2015.8
15-037	인도 에너지산업 점검과 우리기업 진출 기회 : '한-인도 에너지산업 손잡다'	2015.8
15-038	주요국의 제조업 육성정책과 시사점	2015.10
15-039	2015년 4분기 KOTRA 수출선행지수	2015.10
15-040	해외 바이어가 들려주는 100대 수요급등 품목	2015.10
15-041	키워드로 살펴보는 미국 소비시장 트렌트	2015.10
15-042	Blue Ocean 쿠바 시장과 우리기업 진출 전략	2015.10
15-043	러시아 경기불황 장기화의 시사점과 기업대응	2015.10
15-044	이탈리아 장인기업의 비결과 우리기업과의 협력방안	2015.10
15-045	미얀마 총선 결과에 따른 정책방향 및 시사점	2015.11
15-046	해알화 가치 하락에 따른 브라질 경제 동향 및 우리 기업 대응방안	2015.11
15-047	우크라이나 사태 및 대 러시아 서방제재 장기화, 우리에게 기회인가?	2015.11
15-048	7대 먹거리로 살펴보는 유럽시장	2015.11
15-049	그리스 민영화 정책과 시사점	2015.11

□ KOCHII자료

번 호	제 목	번호부여 일
15-001	중소기업 중국 내수시장 진출 종합 안내서	2015.1
15-002	부진속에 빛난 대중국 수출품 : 14년 가공단계별·품목별 수출성과	2015.2
15-003	주요국의 중국 농식품시장 진출 사례	2015.5
15-004	한중 FTA 업종별 기대효과와 활용방향	2015.7
15-005	우리 기업이 꼭 알아야 할 한·중 FTA 비즈니스 모델 및 활용	2015.9
15-006	중국을 움직이는 파워엘리트 400인 증보판	2015.9
15-007	육성에서 혁신으로 : '중국제조 2025' 전략과 시사점	2015.10
15-008	중국 지방 성시별 진출 정보	2015.11

□ GSR (Global Strategy Report)

번 호	제 목	번호부여 일
15-001	韓中美日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과 우리기업의 진출방안 연구	2015.9
15-002	글로벌 가치사슬을 활용한 한·인도 제조업 협력 확대방안	2015.9
15-003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확장과 한국의 투자·통상 대응 전략	2015.9

□ KOTRA자료

번 호	제 목	번호부여 일
15-001	2015년 이후 유럽 각 국의 주요 제도 변화	2015.1
15-002	KOTRA Global Insight (2015년 권역별 진출전략)	2015.1
15-004	2014 KOTRA 글로벌 CSR 성과보고서	2015.1
15-005	2015 권역별 시장진출전략	2015.1
15-006	크로아티아 투자실무가이드	2015.1
15-007	GVC발전단계 모델 관점에서 본 한국의 지역별 외국인투자 입지 현황과 정책방향	2015.2
15-008	주요 글로벌 완성차/벤더 맵핑조사 - 미국 (디트로이트 KAPP)	2015.2
15-009	주요 글로벌 완성차/벤더 맵핑조사 - 독일 (프랑크푸르트 KAPP)	2015.2
15-010	주요 글로벌 완성차/벤더 맵핑조사 - 일본 (나고야 KAPP)	2015.2
15-011	몽골 투자 가이드 2015	2015.2
15-012	코트라와 손잡고 글로벌 시장에서 우뚝 (내수 및 수출초보기업 수출성공사례)	2015.2
15-013	권역별 한류 활용 마케팅	2015.3
15-016	2014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연차보고서	2015.4
15-017	Foreign Investment Ombudsman Annual Report 2014	2015.4
15-018	SEOUL FOOD 2015 디렉토리	2015.5
15-019	외국인을 위한 법인설립 안내	2015.6
15-020	외국인투자가이드	2015.6
15-021	2014 KOTRA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15.6
15-022	2014 KOTRA Integrated Sustainability Report	2015.6
15-023	수출, 더 이상 어렵지 않아요	2015.7
15-024	2015 대양주 유통시장 현황 및 진출 가이드	2015.7
15-025	SEOUL FOOD 2015 결과보고서	2015.7
15-026	문 - 해외전시회 참가 수출 성공 사례집	2015.7
15-027	Labor Law Guide for Foreign Investors (September 2015 Edition)	2015.9
15-028	M&A형 투자유치 현황과 대응전략	2015.8
15-029	지식산권보호연계수책	2015.8
15-030	Doing Business in Korea	2015.9
15-031	Guide to Establishing a Business in Korea	2015.9
15-032	제약산업 브라질 진출 전략 보고서	2015.9
15-033	외국인 투자상담 Q&A	2015.9
15-034	韓國投資ガイド	2015.9
15-035	Invest KOREA 2014년도 연차보고서	2015.9
15-036	중남미 폐기물 에너지화 프로젝트 전문가 합동조사 보고서	2015.9

15-037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전략 추진방안 연구	2015.9
15-038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15 요약번역본	2015.9
15-039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영문법률 포함)	2015.10
15-040	Q&A on FDI in Korea	2015.10
15-041	FIW 2015 STARTUP KOREA Directory	2015.10
15-042	정부간 거래 선도기관의 소송사례 연구조사 : 캐나다상업공사(CCC)의 사례를 중심으로	2015.10
15-043	투자실무가이드 인도네시아	2015.10
15-044	2016 해외시장 진출 호·부진 품목 : 국가 및 무역관별	2015.10
15-045	한중 FTA 실무활용 가이드 (국문)	2015.10
15-046	한중 FTA 실무활용 가이드 (중문)	2015.10
15-047	2015 대전국제농업기술전 (TAMAS 2015) 디렉토리	2015.10
15-048	Invest KOREA Annual Report 2014	2015.10
15-049	2015 투자유망국 유통망현황 및 진출전략	2015.10
15-050	신기후체제 대비 외국인투자 유치전략	2015.11
15-051	2016 한국이 열광할 12가지 트렌드	2015.11
15-052	Global Green Hub Korea 2015 결과보고서	2015.11
15-053	2016 미리 보는 세계 KOTRA 리포트	2015.11
15-054	2016년 권역별 시장진출전략	2015.11
15-055	알기 쉬운 브라질 노동법	2015.11
15-056	MDB • 글로벌개발펀드 프로젝트 플라자 결과보고서	2015.11
15-057	2015년 주요 18개국 해외투자진출 상담사례집	2015.11
15-058	2016 Guide to Living in Korea	2015.11
15-059	2016 韓國生活 가이드ブック	2015.11
15-060	2016 韓國 生活指南	2015.11

□ 설명회자료

번 호	제 목	번호부여 일
15-001	2015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2015.1
15-002	2015 글로벌 투자유치전략 설명회	2015.1
15-003	2015 주요 전략시장 긴급점검 설명회	2015.1
15-004	2015 달라지는 FTA환경과 우리기업 대응전략	2015.1
15-005	코트라 해외수주협의회 제 18차 수요포럼	2015.1
15-006	한류스타-중소기업 융합 해외마케팅 사업설명회	2015.1
15-007	강원도-외투기업 우량기업 투자마케팅 협력상담회	2015.3
15-008	한류스타-중소기업 융합 해외마케팅 설명회	2015.3
15-009	코트라 해외수주협의회 제 19차 수요포럼	2015.4

15-010	한중 FTA 활용방안 설명회	2015.4
15-011	2015 세계 주요시장 수출전략 설명회(지사화 전담직원 방한교육 연계)	2015.5
15-012	3中(중동, 중남미, 중국), 3戰(이란, 멕시코, 중국내륙) 시장 설명회	2015.5
15-013	Global Online Biz-Week Korea 2015 Business Forum	2015.5
15-014	인도 자동차부품 시장 진출 기회	2015.6
15-015	Global Project Plaza 2015	2015.6
15-016	글로벌 가치사슬과 FTA 활용전략 설명회	2015.7
15-017	해외진출氣UP 지원 설명회	2015.8
15-018	에콰도르 투자 설명회	2015.8
15-019	2015 Global Bio Medical Forum - Overseas Hospital Project Presentation	2015.9
15-020	동유럽 의료기기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2015.9
15-021	2015년도 하반기 세계 주요시장 수출전략 설명회	2015.9
15-022	주력시장 긴급점검 설명회	2015.9
15-023	MDB·글로벌개발펀드 프로젝트 플라자	2015.9
15-024	쿠바 마리엘 경제특구 투자 설명회	2015.9
15-025	미래 신성장동력, 해외 프로젝트 시장 진단과 전망 : KOTRA 해외수주협의회 창립 5주년 기념 특별포럼	2015.9
15-026	한중FTA 활용 Gateway To China 설명회	2015.10
15-027	對韓투자 :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첩경	2015.10
15-028	Regional Development Investment Forum	2015.10
15-029	제12회 외국인투자 전문가 포럼(The 12th Korean FDI Forum)	2015.10
15-030	Open Innovation Opportunities with Korea	2015.10
15-031	FIW 2015 STARTUP KOREA	2015.10
15-032	8th Korea-Africa Industry Cooperation Forum	2015.10
15-033	한류 융합 해외마케팅 설명회	2015.10
15-034	Workshop for Defense Attaché in Korea	2015.10
15-035	SABIC - GAPS Launching Conference : 16th Global Alliance Project	2015.11
15-036	신수출먹거리 G2G 민관협력 세미나	2015.11
15-037	중앙아시아 · 이란 진출 설명회	2015.11
15-038	2015 케냐 투자진출 세미나	2015.11
15-039	KOTRA 해외수주협의회 제22차 송년수요포럼	2015.11
15-040	해외투자 유공자 포상식 및 성공전략 워크숍	2015.11
15-041	극동러시아 투자진출 세미나	2015.11



작성자

◆ 구미팀	백승원
◆ 상파울루 무역관	최선욱
◆ 워싱턴 무역관	김병우
◆ 도쿄 무역관	이세경
◆ 런던 무역관	박은경
◆ 암스테르담 무역관	임성아
◆ 베이징 무역관	정진우
◆ 마드리드 무역관	전수연



Global Market Report 15-046

헤알화 가치 하락에 따른 브라질 경제동향 및 우리기업 대응방안

발 행 인 | 김재홍
발 행 처 | KOTRA
발 행 일 | 2015년 12월 1일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3
(우 137-749)
전 화 | 02) 1600-7119(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Copyright © 2015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Global Market Report

www.kotra.or.kr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